

# 경북 집중호우 복구사업 97% 완료... 8월까지 마무리

2023년 21개 시·군서 피해 입어  
공공시설 2060건 복구 마쳐  
제방도로 포장 등 마감공사 진행

경북도는 지난 2023년 6~7월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난 도내 21개 시군에 대한 복구사업이 3년만에 완공될 예정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기간 영천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피해가 났다. 특히 북부지역에는 문경 794mm, 영주 848mm, 봉화 782mm, 예천 731mm 등의 호우가 내려 피해가 컸다.

도내 전체 피해액은 사유시설 624억원, 공공시설 2296억 등 모두 2920억원으로 집계됐다. 29명이 사망(예천 17명, 영주 5명, 봉화 4명, 문경 3명)하고 11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컸다. 이재민 640가구 1162명이 발생하고 주택은 492동(전과 74동, 반과 74동, 침수 344동)이 부서지거나 물에 잠겼으며 농작물은 5010ha가 침수됐고 가축 10만2730마리가 폐사했다.



호암전 복구 전과 후 모습.

공공시설은 도로 394곳(피해액 229억원. 이하 단위 동일), 하천 및 소하천 635곳(1263억), 사방 및 임도 246곳(348억), 수리시설 34곳(42억), 상하수도 33곳(78억), 소규모 시설 659곳(207억), 기타 103곳(129억) 등 2104곳에 피해가 나 피해액은 2296억원에 달했다.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안동시 길안면과 예안면 및 녹전동, 상주시 동문동은 특별재난읍면동으로 지정됐다.

복구액으로 6513억원(국비 4986억,

도비 805억, 시군비 722억원)이 투입됐다. 시군별로는 예천군이 가장 많은 2066억원, 다음으로 봉화군 1917억, 문경시 1290억, 영주시 865억, 안동시 157억, 상주 103억, 그 외 115억원이다.

경북도는 피해가 난 그해의 응급복구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항구복구 사업에 들어가 지난달 말까지 97.2%의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2119건 가운데 2060건이 복구됐고 59건이 공사중이다.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문경 대하리천

등 20개 사업 59곳의 하천이다. 이들 하천에는 교량설치, 호안복구 등의 하상공정은 완료됐고 현재 제방도로 포장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들 공사도 8월까지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전보다 더 튼튼하게 완공해 호우가 오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부산시 BTS 공연 맞춰 통합정보망 운영

부산시는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앞두고 관련 행정·관광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정보망을 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보망은 부산시 공식 누리집과 부산관광공사 관광포털 '비짓부산'을 통해 제공된다.

공연 정보는 물론 교통, 안전, 의료, 관광 등 분야별 정보를 통합 안내하며 두 플랫폼을 연계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누리집에서는 공연장 정보와 함께 다중언어 행동요령, 응급 병원·약국 위치, 폭염 대응 수칙 등을 제공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 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승마 체험 유료화 시범 운영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온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유료 모델로 바꾸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지역에서 유일한 말산업 전담 기관으로, '생애주기별 말산업 플랫폼' 사업을 운영해 왔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기와 결혼, 육아, 청장년기, 황혼기 등 인생의 각 단계에 맞춰 말과 교감하도록 짠 특화 프로그램이다. 그간 지자체와 유관 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액 무료로 진행됐고, 매년 새 문이 이어질 만큼 지역 사회의 호응을 얻어왔다. 이번 유료화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일반 시민에게도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기관으로서의 처음 시도하는 수익화 사업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 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강도다리 치어 6만 마리 방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제31회 바다의 날을 맞아 5일 경주시 양남면 진리항과 인근 연안에서 강도다리 치어 6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치어는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장에서 키운 것으로, 월성본부는 고리·새울·한울본부 방류 행사에도 강도다리 치어 9만 마리와 전복 치어 6만 마리를 지원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발전소 인근 해역의 생태환경 개선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1999년부터 어패류 방류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까지 전복과 참돔, 넙치, 강도다리 등 약 776만 마리를 방류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기장군, 혁신 SMR 유치 결의대회 개최

일광읍발전위 산하 현안대책위 주도  
유치 필요성 알리고 관계기관과 협력

부산 기장군 주민들이 차세대 원전 기술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를 지역에 들여오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기장군은 지난 5일 오후 2시 군청 차성아트홀에서 '혁신형 SMR 기장군 유치 성공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지역 단체인, 위원, 주민 등 350여 명이 자리했다.

SMR은 발전 용량을 줄이고 주요 설비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원자로다. 이 가운데 i-SMR은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차세대 노형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은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번 대회는 일광읍발전위원회 산하 현안대책위원회가 주도해 마련했다. 지난달 19일 기장군 5개 읍·면 이장단연합회가 'i-SMR 기장군 자율유치 추진위

원회' 발대식을 연 데 이어 후속 행사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이날로 예정된 한국수력원자력 부지선정 평가위원회의 주민 여론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지선정 평가위는 원전을 어디에 지을지 정하는 절차를 맡는 기구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반영하는 여론 조사가 평가의 한 축이 된다. 주민들은 이런 시점에 맞춰 유치 의지를 안팎에 알리고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행사는 일광읍 현안대책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해 정종복 기장군수의 격려사, 주민대표의 결의문 낭독, 유치 촉구 구호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결의문과 구호를 통해 유치를 지지할 것을 밝히며 여론 조사에서 찬성 여론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기장군은 이날 말로 예정된 부지선정 결과 발표까지 유치 필요성을 알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남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선정

총 11개 과제... 사업비 33억 투입

경남도는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공정모델형 8개, 재제조지원형 3개 등 총 11개 과제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은 215개 로봇공정 모델을 기반으로 제조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실증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과제 중 '공정모델형'은 로봇 공정모형을 제조현장에 적용해 생산성 향상, 품질 안정화, 고위험·고강도 작업 개선 등 효과를 검증하는 사업이다.

'재제조지원형'은 올해 시범과제로 도입됐다. 사용 이력이 있는 로봇을 분해·점검하고 필요한 부품을 교체해 성능을 보완한 재제조 로봇을 제조현장에 적용해 활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경남도는 시·군, 경남테크노파크와 협력해 2020년부터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5년까지 55개 중소기업에 사업비 126억원을 지원했고, 생산성 평균 46% 향상, 불량률 평균 76% 감소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도는 공정모델형을 통해 제조현장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제조지원형에서는 김해시 진례면에 구축된 한국로봇리퍼브센터의 장비와 기술 지원 역량을 활용해 신규 로봇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을 낮추고, 재제조 로봇의 현장 적용과 안전성 검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TPO 공동 홍보관 부산 부스에서 외국인 방문객과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

## 영양군, '재원창출 복지'로 소멸위기 돌파

새 먹거리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목

영양군이 민선9기 첫 출발과 함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전략 마련에 나선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재원 창출형 복지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양군은 기존의 예산 투입 중심 복지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구조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적은 인구 규모를 정책적 강점으로 활용해 주민 체감형 복지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인 재원을 확보해 정주 여건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축·임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제조업 기반이 사실상 없는 영양군은 농업인과 축산인, 임업인 그리고 지역지역업자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변화 속도를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양군은 복지 확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로운 재원 창출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단순한 에너지 생산 사업이 아닌 복지 재원 마련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부산시, 서울국제관광전서 매력 홍보

TPO 의장 도시 자격으로 참여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서울에서 열린 국내 최대규모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부산 관광의 강점을 알리고 해외 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6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부산의 관광 자원을 국내외 업계 관계자와 일반 참가객에게 소개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행사로, '제5회 세계관광산업 콘퍼런스'와 함께 열렸다. 40여 개 국가·도시와 300여 개 관광 관련 기관·기업이 부스를 마련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 박람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부산은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TPO)의 의장 도시 자격으로 이번 박람회에 참여했다. TPO는 도시 간 관광 진흥과 교류를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사무국을 부산에 두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